

## 인사말씀

---

이번에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과 가사오카 시립 짓쿄미술관, 지바시 미술관에서는 근대의 교토 화단에서 특이한 여성상을 계속 그려 온 오카모토 신소의 전체상을 소개하는 전람회를 개최합니다.

1894년 고베시에서 태어난 신소(본명 도시로)는 1915년에 교토 시립 미술공예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교토 시립 회화전문학교로 진학합니다. 처음에는 당시 유행하던 신남화풍 작품을 그렸지만, 1916년경부터 평생의 모티프가 되는 게이샤를 다케히사 유메지 스타일로 묘사하게 되었고, 서서히 “입술 화장” (1918년)과 같이 우키요에 풍속화의 영향을 받은 관능적인 화풍으로 바뀌면서 신형 미인화 작가로서 주목받게 됩니다. 1920년 제3회 국전에는 마찬가지로 게이샤를 모티브로 마음 속 깊은 곳의 음영을 표현함으로써 신비로운 존재감을 드러낸 “놀이를 하는 세 명의 게이샤 습작”을 출품해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 후 기쿠치 게이게쓰에게서 배우고, 쇼와시대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관능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은근히 풍기는 듯한 작품으로 바뀌지만,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1933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 전람회는 “입술 화장”과 “놀이를 하는 세 명의 게이샤 습작” 등 지금까지 알려진 작품뿐만 아니라, 과작에다 일찍 세상을 떠난 관계로 얼마 되지 않는 작품을 최대한 모았고, 소묘, 밑그림, 자료 등도 100점 정도 추가하여 화가로서의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오카모토 신소에 관한 최초의 대규모 전람회입니다. 또한 기무라 시코, 이타쿠라 세이코, 호리이 고타, 가이노쇼 다다오토 등 함께 겨루었던 동시대 작가들이나 스승 기쿠치 게이게쓰의 작품도 전시합니다. 신소의 예술과 함께 화가가 활동했던 시대의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전람회 개최를 위해 귀중한 작품과 자료를 출품해 주신 각 미술관 및 소장자 여러분, 아낌없이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최자